

#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 제한적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게시판 내 글쓰기 행위 및 비방과 욕설의 변화를 중심으로\*

우 지 숙\*\*·나 현 수\*\*\*·최 정 민\*\*\*\*

## < 목 차 >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 III. 연구 문제와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 V. 결론 및 논의

## < 요 약 >

이 연구는 실명제 도입 이전과 이후의 글게시 행위와 게시글 및 댓글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를 탐구하였다. 실명제 실시 이후 게시글과 댓글의 숫자 및 게시판 참여자의 숫자가 감소하고 삭제된 글의 빈도도 늘어나는 등, 실명제의 실시는 글게시자들의 글쓰기 행위를 변화시키고 다소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명제 이후 게시글의 비방과 욕설 사용은 줄어들지 않은 반면, 글게시자의 특성이 게시글의 내용에 영향을 미쳤다. 글을 자주 쓰는 중게시자와 보통게시자에 비해 경게시자가 비방글을 올리고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댓글에 대해서는 실명제의 효과가 검증되었는데, 실명제 이후 댓글의 비방과 욕설이 줄어든 것이다. 또한 게시글에 비방적 내용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댓글에서도 비방적 내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반응적 비방성 댓글은 실명제 이후 급격히 줄어든 반면 게시글 내용에 상관없이 나타나는 비방적 댓글은 줄어들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비방과 욕설에 대한 실명제의 효과가 부분적으로 검

\* 이 논문은 정보공유 라이선스 2.0 개작금지 조건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대한민국 2.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freuse.or.kr/html/license\\_result\\_gg.php](http://freuse.or.kr/html/license_result_gg.php)와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d/2.0/kr/>에 있습니다.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교수(jisuk@snu.ac.kr).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수료(nahs@nahs.pe.kr).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수료(mingg11@snu.ac.kr).

논문접수일(2009.11.1), 게재확정일(2009.11.23)

증되었음과 함께, 글게시 환경과 게시글 및 댓글의 내용 간의 관계에서 이용자 개인의 역할이 함께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인터넷 이용자들의 행태와 이들이 게시하는 글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고자 할 경우 제도적 요건과 함께 이용자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제어: 인터넷, 익명성, 실명제, 표현의 자유, 내용분석】

## I. 서론

인터넷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공간으로 자리잡았으며,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대한 표현의 공간으로서의 역할 역시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한 규제는 근본적으로는 말과 글을 이용한 인간의 표현에 대한 규제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익명적 표현의 자유와 연관되어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 익명성은 다수가 가진 의견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면서도 다수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이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익명적 표현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규제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인터넷 관련 규제의 틀을 만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적 표현을 통제하는 법이 만들어진 바 있다. 하루 30만명 이상 방문하는 사이트가 게시판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법제화한 것이다.<sup>1)</sup> 제한적본인확인제라고 불리는 이러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는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고, 2009년 4월부터 그 적용대상이 일일 평균 이용자수 30만명 이상인 사이트에서 10만명 이상인 사이트로 확대되어 기존에 37곳이었던 실명제 적용 사이트가 180곳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도입 이전부터 제도의 확대 과정을 통해 지금에 이르기까지 실명제에 대한 찬반 논쟁은 매우 거세었고, 여론조사 결과도 시기와 조사 주체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sup>2)</sup> 전문가들 간에도 실명제에 대한 입장은 서로 일치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본인확인조치) 및 제30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본인확인 조치의무자의 범위) 참조.

2) 한나라당 여의도조사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인터넷실명제 확대에 59.5%가

하지 않는다. 실명제 도입의 근거로서 주로 사용된 주장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의 원인이 익명성에 있다는 것과 실명제의 실시를 통해 이러한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으리라는 것이었고(정완, 2005), 반대의 논거는 주로 헌법적 원칙에 어긋나고 표현의 자유에 지나친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점과 범죄방지 등 의도한 효과를 실제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었다(김기창, 2009; 한상희, 2003; 황성기, 2008).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시행 이후에도 많은 학자들이 헌법적, 현실적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하였다. 헌법적으로는 게시판의 개념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법 적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짐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익명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표현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개인정보보호의 이념에 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민경배, 2005 장여경, 2008; 황성기, 2008). 반면 인터넷 실명제는 사전적 내용심사가 아니므로 검열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상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다(명재진, 2005). 정책의 목표와 도구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되었는데,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는 실명을 확인하는 다양한 방법들 중 추적가능한 가명을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범죄나 일탈행위에 대한 추적은 용이할 수 있지만 인터넷 공간에서 악플을 줄이거나 사이버 문화를 개선하는 데에는 그 효과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김기창, 2009; 황용석, 2007). 실명제 도입의 입법 목적이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법한 표현행위를 한 인터넷 이용자를 추적하여 처벌 또는 책임을 지우고자 하는 것이라면, 본인 여부를 확인할 길 없이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되는 표현의 당사자를 추적할 수가 없게 된다. 위법한 표현을 하려는 의사가 있는 이용자일수록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즉, 표현에 대한 사후 규제라는 입법 목적을 실제로는 달성할 수 없는 제도라는 비판이다. 반면 익명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 역기능이 존재한다고 추정하기도 하는데, 명예훼손적 메시지나 위협, 욕설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표현과 친북적 표현 등 불법정보 등과 관련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통제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으로서 익명성의 제한을 제안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역기능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여부가 실명제 논의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실명을 확인하는 환경에서 실제로 사이버 범죄 등이 감소하는지에 대한 경험적 자료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듯하다. 실험

---

찬성한 반면(방정환, 2008. 10. 8.), 공공미디어연구소가 2009년 미디어법 관련 공청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73%가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한다고 응답하였고(곽상아, 2009. 5. 1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실명제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35.7%로 반대한다는 의견(32.6%)보다 더 많았다(김창덕, 2009. 6. 11.).

이나 서베이 방법을 사용하여 익명성의 효과를 분석한 소수의 경험적 연구들(성동규·김도희·이윤석·임성원, 2006; 이성식, 2004; 최영·이종민·김병철, 2002)이 있는데, 이러한 연구의 결과들은 인터넷 상의 표현과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익명성과 같은 환경적 요인인지 이용자 개인의 특성인지 또는 이들 간의 상호작용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고 아직 일관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도입 이전과 이후의 게시판 글과 글쓰기 행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실명제의 실제 효과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용자의 특성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이용자의 특성이 실명제의 효과와 맞물려 커뮤니케이션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 1. 표현의 자유와 익명성

익명이란 투명성과 반대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고 수집된 정보와 그 정보가 원래 속한 개인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 정체성을 추적하지 못한다는 것이 중요한 요건이다(Zarsky, 2004).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익명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엔은 익명적 커뮤니케이션을 강력한 인권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고,<sup>3)</sup> 미 연방 대법원은 익명 표현의 자유가 헌법적 권리로서의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맥킨타이어(McIntyre) 대 오하이오 사건에서 미 대법원은 학교세금인상에 반대하는 전단을 배포한 학부모의 익명적 전단배포행위가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는다고 밝히고, 화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을 권리는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맥킨타이어 판결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지는 않았지만 익명의 담화에 대한 미 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인데, 특히 정치적, 사회적 메시지의 전달을 위한 익명 표현의 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익명이나 가명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헌법적 보호는 미국에서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Froomkin, 1996). 정치적 커뮤니케이션과 달리 비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은 헌법에 의해 반드시 보호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익명으로 ‘말할’ 권리는 명백하게 인정되지만 익명으로 ‘읽을’ 권리는 다소 추상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다(Farmer, 2003; Lidsky & Cotter, 2007).

익명적 표현의 자유는 이론적, 규범적으로도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Froomkin, 1996; Froomkin, 1999; Long, 1994; Marsh, 2007; Stieglitz, 2007;

3) 1948년 유엔총회 인권선언문.

Traynor, 2003). 익명적 표현의 사회적 가치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었는데, 소수의 견해가 표현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Froomkin, 1999), 기존의 사회문화적 관행을 날카롭게 비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민경배, 2000), 개인정보 사용 및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화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우지숙, 2005; 이은우, 2003; Froomkin, 1996), 각 화자가 자율성을 갖고 행동할 수 있도록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점(Zarsky, 2004), 아이덴티티의 발현 및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자아생성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Byford, 1998),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자기 결정 및 권한강화(empowerment)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 등이다. 반면 익명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대부분 명예훼손, 위협, 욕설 등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Tien, 1996),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활동을 쉽게 적발하기 위해서(Froomkin, 1996), 지적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Cohen, 1996) 등으로서, 익명성의 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둔다. 익명성 자체의 역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익명의 공간에서 사람들은 사회적 규범이나 구속으로부터 해방감을 느끼고 범죄 또는 비행을 죄의식이나 일탈의식 없이 저지르게 되며 이를 사이버공간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일반화한다는 것이다(한상희, 2003).

즉, 한편으로는 익명적 표현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이유가 매우 자명해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익명성과 책임성 간의 긴장관계가 존재하므로 익명성으로 인한 해악을 누그러뜨릴 방법을 찾는 것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보게 된다(Farmer, 2003). 이득과 해악을 비교하고자 하는 이러한 입장은 여러 학자들의 논의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역시 구체적으로 실행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익명성을 제거함으로써 사회적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 익명성의 금지는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Lidsky & Cotter, 2007).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익명성에 대한 여러 논의들에서 결론을 이끌어 내기는 매우 어렵다. 더욱이 표현의 자유의 범리에 의하면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공공적 담론에서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시민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시민들이 익명의 정보를 낮게 평가하거나 스스로 익명 정보의 가치와 진실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에 만연한 익명표현의 증가는 역설적으로 이러한 믿음에 도전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익명성 자체의 이득과 해악을 규범적으로 따지는 것은 다소 무의미해진다(황성기, 2008; 황용석, 2007). 그보다는 현재의 상황에서 익명적 환경이 이용자의 커뮤니케이션에 어떠한 환경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 2. 실명·익명성이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이 등장한 초기에는 인터넷 공간의 익명적 특성이 커뮤니케이션을 촉진시킬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특히 토론에 대한 참여 및 소수 의견의 표현을 촉진한다고 보았다(Siegal, Dubrovsky, Kiesler, & McGuire, 1986). 이러한 입장은 주로 화자의 정체성과 관련된 신호나 단서의 부재로 인해 사회규범에서 보다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기대 및 관찰에 근거하고 있다(Danet, 1998). 나이, 성, 인종 등 사회적 지위에 대한 단서에 의해 먼 대 먼 커뮤니케이션이 영향을 받는다면, 인터넷 공간에서는 이러한 단서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더욱 자유로운 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경우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거나 감추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단서가 부재할 경우 화자간의 사회적 유대감 역시 발휘되기 어려워짐으로 인해 의미있는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McGuire, Kiesler, & Siegal, 1987). 사회 규범의 압력을 받지 않을 때 사회일탈적인 행위가 증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익명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거나 탈억제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박정순, 2004).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 정도가 이용자들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들은 많지 않은데, 인터넷 게시판 실험제의 효과를 분석한 정부의 용역 보고서와 실명 환경과 익명 환경을 비교한 소수의 학문적 연구들이 있다. 그런데 연구자마다 익명성 또는 실험제의 정의를 달리 하고 있어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주의가 요구되는 듯하다. 익명성의 정도를 현실에 적용한다면 사전에 화자의 정보를 요구하지도 않고 게시판에서도 화자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 익명적 환경, 본인확인제에서와 같이 게시판에서는 화자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고 가명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글을 쓰기 이전에 등록 등 화자의 정보를 요구하는 환경, 게시판에서 화자의 정체성 관련 단서가 제공되는 경우, 게시판에서 화자의 실명이 드러나는 실명 환경 등 여러 가지이다.

먼저 제한적본인확인제 도입의 효과를 분석한 정부의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35개 사이트 중 본인확인을 시행하지 않고 있던 다음 포털과 디시인사이드 등에서 제도 시행 전후에 게재된 댓글에서 악성 댓글이 차지하는 비중이 15.8%에서 13.9%로 감소했고, 심한 욕설 등을 동반한 심각한 악성 댓글의 비중은 8.9%에서 6.7%로 감소했다(이현창 외, 2007). 그러나 이러한 보고서 발표 후 연구 대상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에서 실제 사이트에서 체감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른 내용이라며 반론을 제기하였는데, 신규 갤러리(게시판)들로 인해 댓글 수 자체가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본인확인제 시행 후 댓글 수

가 감소한데다가 사이트에서 악성댓글을 즉각 삭제하는 등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한 결과이지 실제 악성 댓글이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뉴스와이어, 2007). 또한 디시인사이드는 본인확인제 시행 후 페이지 뷰가 크게 감소하는 등 인터넷 서비스 이용의 위축효과가 크게 있었다고 주장하여 상반된 입장이 서로 대립하였다(이성희, 2007).

한편 본인확인제도의 효과에 대해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연구로서 같은 사이트 내의 익명 게시판과 등록회원 게시판을 비교한 연구가 있다(김경년·김재영(2005)). 이 연구에서는 오마이뉴스의 익명게시판과 등록회원 게시판에 올라온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을 비교하여 의견 표출방식과 상호작용 유형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게시판의 유형에 따라 비방성 언어의 사용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심한 욕설과 속어의 비중은 익명게시판에서 높았으나 단순욕설의 비중은 등록회원게시판에서 더 높았고, 전체적으로 비방성 언어가 사용된 독자의견의 비중은 양 게시판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하여 비방성 언어가 증가한다는 인과 관계는 성립하지 않음을 보인 것이다. 또한 서로 다른 성격의 게시판을 비교하지 않고 실명제 도입 이전과 이후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비교 분석한 연구도 있다(이시원·민병익, 2002). 이 연구에서는 글쓰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이후 경상남도 진주시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주민들이 글을 쓰는 참여 건수와 게시글을 조회하는 간접 참여 건수가 모두 현격하게 줄어 위축효과가 나타났음을 보였다. 민간 사이트에 대해서는 동아일보 인터넷신문 동아닷컴이 완전한 실명 공간으로 전환하기 전과 후를 비교한 연구가 있다(최영 외, 2002). 이 연구에서는 본인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제공한 후에는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던 환경에서 실명 아이디를 사용해야 하는 환경으로 전환한 뒤에도 참여자의 수나 전체 메시지 건수, 상호작용성 정도에서 별다른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존중 여부를 비교해 보았을 때에는 반말이 줄어들고 존댓말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고 욕설이나 비방을 하는 경우도 줄어들었다. 또한 보다 포괄적인 의사소통 행위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에서 이준웅·김은미·문태준(2005)은 익명적 실험 조건에서 토론의 양이나 품질이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타인의 토론 개입이 유도된다는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화자의 발언에 익명 환경 여부만이 아니라 다른 요인이 함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힌 연구들이 있다. 박인우·김미향(2000)은 가상토론 실험을 통해 익명적 환경에서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부정적 발언의 횟수가 실명 환경과 익명 환경에서 서로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보였다. 흥미로운 것은 부정적 발언 횟수에 대한 실명과 익명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익명일 때 부정적 발언을 많이 한 대상자는 실명일 때도 부정적 발언을 많이 했

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즉, 부정적 발언을 상황에 관계없이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으로서, 부정적 발언은 익명성 보다는 화자의 개인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임을 시사하였다. 성동규 외(2006) 역시 사이버 폭력의 가해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베이를 실시하여 사이버 폭력에 대한 피해의 경험이 가해 경험을 유발한다는 점을 보였으며, 이용자 개인 성향 중에서는 공격성이 높고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적을수록 사이버 폭력을 하게 되는 반면 익명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고 해서 사이버 폭력을 더 행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였다. 이용자 개인의 경험이나 특성이 사이버 폭력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이용자가 인식한 익명성의 정도는 사이버 폭력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익명성보다는 화자의 특성이 인터넷상의 언어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이성식(2005)의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부모와 애정유대관계, 부모의 강압적 양육정도, 폭력에 대한 용인 태도 등과 인구사회학적 변인 등을 모두 통제된 후에도 익명성과 욕설이나 비방, 허위정보를 올리는 ‘언어폭력’의 관계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이버 언어폭력에 대한 태도, 비행친구와의 접촉, 자기통제력 등과 언어폭력의 관계 역시 유의미하였을 뿐 아니라 그 영향력이 익명성의 영향력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은 익명 상황에서 언어폭력을 더 많이 행하게 되기는 하지만, 익명성과 상관없이도 사이버 언어폭력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비행친구와 사귀는 학생들, 자기통제력이 낮고 충동적인 학생들이 더 많이 언어폭력을 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익명성과 사이버 언어폭력에 대한 태도는 서로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는데, 익명성의 영향력이 특정한 태도를 가진 청소년에 한하여 작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성식(2005)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어폭력은 익명 상황 이외에 행위자들의 사회적, 개인적 요인들에 의해 더 잘 설명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게시판 내용분석을 통해 익명적 환경에서 게시글의 수나 상호작용 등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인 연구도 있고, 실명적 환경이 욕설 및 비방을 줄이는 반면 글 게시 및 의사표현을 통한 참여나 상호작용의 횟수 역시 현저하게 줄어들어 커뮤니케이션의 위축 효과 역시 상당하다는 결과를 보인 연구도 있다. 한편 실험이나 서베이 연구에서 익명 공간에서 욕설이나 비방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이것이 익명성만의 효과라기보다는 화자의 특성이나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영향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 익명성이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직 일관된 결론이 도출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게시판 내용 분석을 통해 익명적 상황에서 실명 상황으로 변화한 게시판 사이트



에서 실명제 이전과 이후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함과 동시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이용자 특성으로 인한 효과를 함께 검토하여 익명성이 인터넷상의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인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Ⅲ. 연구 문제와 연구 방법

#### 1. 연구문제

실명제의 부작용으로 자주 거론되는 것으로서 이름과 주민번호를 사이트에 남겨야 한다는 부담감과 글을 쓰는 과정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인터넷상 글쓰기가 감소된다는 주장이 있다(황용석, 2007). 이러한 위축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명제 이전과 이후의 게시판 글의 수, 댓글의 수, 글 게시자의 수 등을 살펴봄으로써 실제 글쓰기 행태에 변화가 발생하는지 살펴본다. 또 다른 위축효과로서 실명제 실시 이후 글삭제 행위가 증가하는지도 살펴본다. 한편 실명제의 효과가 이용자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실명제 시행 이전과 이후 글을 많이 쓰는 중게시자와 가끔 쓰는 경게시자 등 글게시자의 구성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본다.

① 인터넷 게시판의 실명 확인 여부가 이용자의 글쓰기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구체적으로 실명제 실시 이전과 이후 게시판 글의 수, 댓글의 수, 글을 삭제한 빈도, 글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 글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구성에 차이가 있는가?

기존의 논의에서는 실명제가 비방, 욕설 등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주장과 반대로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양립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게시판의 게시글과 댓글의 내용분석을 통해 실명제 시행 이전과 이후 비방과 욕설이 나타나는 데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②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이전과 이후 게시글의 비방 및 욕설 사용과 댓글의 비방 및 욕설 사용에 차이가 있는가?

기존의 연구들은 인터넷 이용자의 특성이 외부적, 환경적 요인보다 인터넷상의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이용자 특성과 외부 환경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인 바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글게시자의 특성에 따라 게시글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글게시자의 특성 중 활동량과 충성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서 상시적 이용자인지 비상시적 이용자인지, 글을 올리는 빈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 글게시자를 중게시자, 보통게시자, 경게시자로 나눈다. 이러한 글쓰기 관련 특성이 게시글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sup>4)</sup>

③ 글게시자의 글쓰기 특성에 따라 게시글의 비방 정도 및 욕설 사용에 차이가 있는가?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실명제의 영향이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실명제 도입의 효과가 모든 인터넷 이용자에게 같은 방식이나 정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이용자 집단에 더 크게 나타난다면 그 현실적, 정책적 함의 역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평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많이 올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실명제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다.

④ 인터넷 게시판의 실명 확인 여부가 게시글에 나타나는 비방과 욕설 사용에 미치는 영향이 글게시자의 글쓰기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한편 댓글은 게시글의 글의 내용에 대한 반응으로 쓰여지는 것으로서 원게시글의 비방 및 욕설 사용 여부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비방과 욕설 사용에 있어서 게시글과 댓글 간의 상호작용이 있는지 가늠해 본다.

⑤ 원게시글의 비방 여부에 따라 댓글의 비방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 또한 원게시글의 욕설 여부에 따라 댓글의 욕설 사용에 차이가 있는가?

또한 게시글에 비방 및 욕설이 있었는지에 따라 댓글의 비방 및 욕설 사용에 대한 실명제 효과가 달라지는 지도 상호작용 효과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⑥ 게시글의 비방 및 욕설 사용 여부에 따라 댓글에 대한 실명제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가?

---

4) 본 연구는 실험연구나 설문조사 연구와는 달리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측정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므로 이러한 변인들은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댓글의 경우에는 아이피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댓글게시자의 특성이 댓글의 비방 및 욕설 사용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할 수 없다.

##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게시판 실명제가 시행되기 시작한 2007년 7월 27일 이전과 이후 10일간의 인터넷 글쓰기 행태와 게시글 및 댓글의 내용을 비교한다. 연구 대상으로는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dcinside)<sup>5)</sup>의 게시판을 선정하였다. 2009년 현재 커뮤니티 포털 분야에서 점유율 3위인 디시인사이드는 대부분의 다른 커뮤니티 포털들이 회원가입을 한 사람들에게만 글쓰기를 허용해 온 것과는 달리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도록 해 왔기 때문에 실명제 시행의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연구 대상이다.<sup>6)</sup> 실명제 시행 이전에 디시인사이드에서는 회원 가입과 실명확인 없이 누구나 필명(nickname)만으로 글을 작성할 수 있었고, 댓글 작성이나 글의 조회 시에도 회원가입이나 본인 확인 등이 요구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7년 7월 27일부터는 글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작성할 때 이미 실명 확인이 된 아이디로 로그인하거나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을 해야만 글을 작성할 수 있게 되어, 로그인을 하지 않고 글을 쓰는 이용자들은 실명제 시행 이후에는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쓸 때마다 본인확인 절차를 매번 거쳐야 하게 된 것이다.<sup>7)</sup> 본 연구는 이렇게 로그인을 하지 않고 디시인사이드에 글을 쓰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글쓰기 행위와 글 내용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실명제 시행의 효과를 보다 정교하게 측정해 보고자 한다.

디시인사이드의 여러 갤러리(게시판) 중 시사적 토론이 많이 벌어지는 ‘이슈’ 갤러리를 선정하여 그 중 ‘정치사회’ 게시판의 게시글과 댓글을 연구 대상으로 정하였다. 글쓰기 행위의 변화가 당시의 특정한 정치사회적 사건이나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보다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연구 문제 1에서는 이슈 관련 갤러리와 글쓰는 사람들의 구성이나 글의 성향이 다르면서도 활발히 글쓰기가 행해지고 있는 ‘패션’ 갤러리 중 ‘상의’ 게시판을 택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두 게시판에 실명제 시행일 전후 10일간 올라온 게시글과 댓글의 숫자 및 로그인하지 않고 글을 올린 이용자의 숫자를 조사하였다. 또한 글게시자의 구성을 보기 위해 하루 1회 미만의 글을 쓰는 게시자들을 상시적 참여자가 아닌 비상시적 이용자로 보아 경계시자로 분류하고, 하루 1회 이상 글을 쓰는 이용자들을 상시적 참여자로 보아 이 중 5회 미만의 글을 쓰는 게시자들을 보통게시자, 하루 평균 5개의 이상의 글을 쓰는 게시자들을 중계시자로 분류하였다.<sup>8)</sup>

5) <http://www.dcinside.com>.

6) 이미 회원가입을 해야만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여 본인확인을 시행해 온 사이트를 대상으로는 실명제로 인한 변화를 연구하기 어렵다.

7) 아이디를 만들면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회원들에게는 실명제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이 없다.

연구문제 2부터 6까지와 관련한 게시글과 댓글의 내용분석은 ‘정치·사회’ 게시판을 대상으로 하였고, 실명제 전후 글내용의 변화가 욕설과 비방을 즐겨 하는 이용자들이 실명 공간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같은 이용자들이 욕설과 비방을 스스로 자제하게 되었기 때문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명제 시행 이전과 이후에 모두 글을 1회 이상 쓴 이용자들을 추적하여 분석하였다. 실명제 시행 이전과 이후에 모두 글을 쓴 이용자들은 208명이었다. 이들 중 무작위로 선정한 18명의 게시글 630개와 이에 달린 댓글 2,589개를 내용 분석하여<표 1>, 각 글에 비방적 내용이 있는지, 욕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코딩하였다.9)

<표 1> 분석 대상이 된 아이피와 구성10)

추출된 IP	글의 빈도	글게시자별 글 빈도	해당 글게시자 수	게시자 구분
211.108.*.*	302	302 (47.9%)	1명 (5.6%)	중게시자
211.204.*.*	72	253 (40.2%)	6명 (33.3%)	보통게시자
121.129.*.*	58			
59.6.*.*	43			
125.190.*.*	30			
125.134.*.*	29			
121.144.*.*	21			
219.251.*.*	13			
222.233.*.*	11	75 (11.9%)	11명 (61.1%)	경게시자
211.41.*.*	11			
210.223.*.*	8			
123.213.*.*	7			
203.131.*.*	5			
222.112.*.*	5			
122.47.*.*	5			
61.33.*.*	5			
125.128.*.*	3			
211.192.*.*	2			
전체	630			

- 8) 사용자 식별은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웹크롤링(Web-Crawling)기법을 사용한 아이피 조사를 통해 파악하였으며 Ubuntu linux 9.04 버전을 사용하였다. 또한 하나의 아이피를 한명의 이용자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는데, 아이피 중 주소가 고정되지 않고 마지막 자리 숫자가 변하는 유동 아이피의 경우에는 다른 아이피로 분류되므로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 9) 욕설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비방적이지 않은 내용은 찾을 수 없었고, 개념적으로도 욕설을 동반한 비방과 그렇지 않은 비방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았다.
- 10) 4자리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모두 조사하여 선정한 아이피들이지만, 표에서는 식별되지 않도록 뒤의 두 자리를 \*로 처리 하였다.

욕설은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말 또는 남을 저주하는 말로서, 일반적인 욕설과 함께 그 대체수단<sup>11)</sup>을 사용한 경우까지 포함하였다. 비방은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하는 것으로서 욕설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단어까지 포함하여 인정하였는데, 글 전체의 맥락을 보아 비방 여부를 파악하였다. 연구자 2인이 각각 연구대상 글 전부를 코딩하였고, 코헨의 카파 벨류(Cohen's kappa value)로 코딩간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4개의 모든 항목에서 0.70을 넘었다.<sup>12)</sup> 연구문제 4와 6에서는 상호작용 효과를 보기 위해 이원배치 분산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인터넷 실명제가 글쓰기 행위에 미치는 영향

#### 1) 게시글, 댓글 및 삭제글의 빈도

이슈(정치·사회) 갤러리의 게시글 일일 평균은 실명제 이전 1,319건에서 이후 399.7건으로, 댓글 일일 평균도 실명제 이전 4,259.5건에서 이후 2,156.4건으로 모두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sup>13)</sup>

<그림 1> 이슈 갤러리 글의 수 분포<sup>1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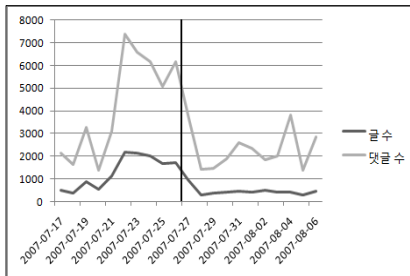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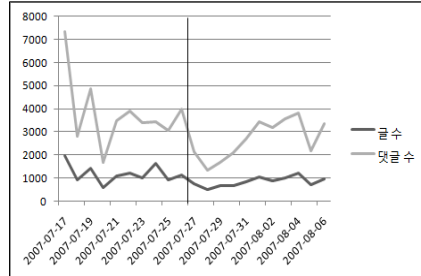


그림 2> 패션 갤러리 글의 수 분포



11) Cbal놈, 개책끼, ㅂㅅ, qt, 등을 말한다. 자체 필터링 시스템에 의해서 직접적인 욕설이 담긴 글이나 댓글은 올릴 수 없게 되어 있었기 때문인지, 대부분 대체수단에 의한 욕설이 사용되었다.

12) 비방 0.72, 욕설 0.813, 비방의 대상 0.781, 욕설의 대상 0.804. 서로 다르게 코딩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다시 코딩해 본 후 그래도 일치하지 않으면 토론을 통해 결정하였다.

13) 게시글 차이  $t=4.08, p<.001$ ; 댓글 차이  $t=2.86, p<.01$ .

14) 가운데 세로선은 실명제가 시행되기 시작한 날짜를 표시한다.

패션(상의) 갤러리 역시 게시글은 실명제 이전 1,185.5건에서 이후 849.5건으로 유의미하게 줄었고,<sup>15)</sup> 댓글도 3,792.9건에서 2,738.9건으로 약하지만 유의미한 정도로 줄어, 실명제 후 일어난 글쓰기의 위축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sup>16)</sup> 또한 실명제 시행 10일 전후의 글의 분포를 보면, 이슈 갤러리에서 일일 최고 2,000건 이상이던 글 수가 27일을 기점으로 500건 정도로 줄어들고, 댓글 수가 일일 최고 7,000건에서 실명제 이후 4,000건 정도로 줄어들었다<그림 1>. 패션 갤러리에서도 실명제 이전 최고 2,000건 이상이던 게시글이 실명제 이후 1,400건으로, 4,000개 이상이었던 댓글 수가 3,000건 이하로 줄어들었다<그림 2>.

실명제 이전과 이후 글게시자가 자신의 글을 얼마나 삭제했는지를 살펴보면,<sup>17)</sup> 실명제 이전에는 삭제된 글이 전체 글의 27.0%(18,064개 중 4,871개)였고 이후에는 전체 글의 39.5%(6,615개 중 2,616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표 2>. 디시인사이드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운영자가 게시글을 삭제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의 삭제글은 글게시자가 직접 삭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명제 시행 이후 글쓰기 자체의 감소 뿐 아니라 글을 쓴 이후 자기검열 차원에서의 위축 효과도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표 2> 실명제 시행 전후의 삭제글 수

실명제 실시 이전		실명제 실시 이후	
삭제된 글	전체 글	삭제된 글	전체 글
4871 (27.0%)	18064 (100%)	2616 (39.5%)	6615(100%)

$\chi^2=185.844$ , 자유도=1,  $p=0.000$

## 2) 게시판 참여자의 숫자 및 구성

실명제 실시 전후 10일간 정치·사회 게시판에 글을 올린 참여자들의 숫자와 그 구성을 조사한 결과, 글을 쓰는 아이피의 수가 실명제 이전 2,585개에서 이후 737개로 크게 줄었다<표 3>. 또한 아이피의 구성을 보면 실명제 실시 전후

15)  $t=2.23$ ,  $p<.05$ .

16)  $t=1.94$ ,  $p<.10$ .

17) 조사 대상 게시판의 경우 글이 삭제되더라도 지운 글의 내부 글 번호가 새로운 글에 덮여 씌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삭제된 글의 빈도를 구할 수 있었다. 삭제된 글의 경우 제목, 필명, 아이피, 로그인하여 쓰인 글인지 여부 등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로그인 하지 않은 유저만을 추출하여 글을 삭제한 빈도수는 구할 수 없어 로그인을 하지 않고 글을 올린 이용자와 로그인하여 글을 올린 이용자의 글을 모두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중계시자의 비율은 비슷하지만 보통계시자의 비율이 10.6%에서 6.4%로 줄어들고 경계시자의 비율이 88.8%에서 92.9%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즉, 하루 1회에서 4회 정도 글을 쓰는 보통계시자들은 줄어들고 1회 미만으로 글을 올리는 비상시적 참여자가 늘어난 것이다. 또한 보통계시자들이 올리는 게시글의 수도 줄어들었는데, 전체의 10.6%이면서 44.8%의 게시글을 올리던 보통계시자들이 실명제 이후 32.8%의 게시글을 올리게 된 반면, 경계시자가 올리는 게시글의 비율이 43.2%에서 49.6%로 더 높아졌다. 실명제 실시 이후 게시판에서 경계시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이들이 쓰는 게시글의 비율이 전체의 반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 함의에 대해서는 글의 내용을 분석한 다음 장에서 더 논의하기로 한다.

<표 3> 실명제 이전과 이후의 게시판 참여자의 숫자 및 구성

글쓰기 특성	실명제 실시 이전		실명제 실시 이후	
	아이피 수	게시글 수	아이피 수	게시글 수
중계시자	16(0.6%)	1,428(12.0%)	5(0.7%)	456(17.6%)
보통계시자	273(10.6%)	5,324(44.8%)	47(6.4%)	850(32.8%)
경계시자	2,296(88.8%)	5,134(43.2%)	685(92.9%)	1,283(49.6%)
합계	2,585(100%)	11,886(100%)	737(100%)	2,589(100%)

아이피 수  $\chi^2=11.540$ , 자유도=2,  $p=0.003$

게시글 수  $\chi^2=141.920$ , 자유도=2,  $p=0.000$

## 2. 인터넷 실명제가 게시글과 댓글의 비방과 욕설 사용에 미치는 영향

### 1) 게시글 및 댓글 내용의 기술 분석

글의 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 비방이 들어간 글이 전체 630개 게시글의 13.2%(83개)였고, 욕설이 포함된 글이 전체의 4.0%(24개)였다<표 4>.

<표 4> 게시글과 댓글에 나타난 비방과 욕설의 빈도

게시글에 나타난 비방과 욕설의 빈도				댓글에 나타난 비방과 욕설의 빈도			
비방 글	83 (13.2%)	욕설 포함된 글	24 (4.0%)	비방 글	649 (25.1%)	욕설 포함된 글	92 (3.6%)
비방이 아닌 글	547 (86.8%)	욕설 포함 안된 글	606 (96.0%)	비방이 아닌 글	1,940 (74.9%)	욕설 포함 안된 글	2,497 (96.4%)
전체	630 (100%)	전체	630 (100%)	전체	2,589 (100%)	전체	2,589 (100%)

한편 댓글의 경우에는 비방이 있는 경우가 전체 2,589개 댓글의 25.1%(649개)였고, 욕설이 포함된 글은 전체의 3.6%(92개)였다.<sup>18)</sup> 욕설이 나타나는 비중은 게시글과 댓글 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비방글은 게시글보다 댓글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실명제의 효과를 살펴본다. 실명제 이전에는 게시글의 13.9%가 비방글이고 이후에는 12.2%가 비방글인 것으로 나타나, 실명제 전후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표 5>. 욕설 사용 여부를 살펴봐도 실명제 이전에 4.7%였던 욕설 글이 실명제 이후 2.6%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즉, 게시글의 경우 실명제 실시 이전과 이후에 비방과 욕설 사용 모두에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실명제 이전과 이후 게시글의 비방과 욕설 정도

	게시글의 비방 정도			게시글의 욕설 사용 정도			
	실명제 이전	실명제 이후	전체		실명제 이전	실명제 이후	전체
비방 글	50 (13.9%)	33 (12.2%)	83 (13.2%)	욕설 포함된 글	17 (4.7%)	7 (2.6%)	24 (3.8%)
비방이 아닌 글	309 (86.1%)	238 (87.8%)	547 (86.8%)	욕설 포함 안된 글	342 (95.3%)	264 (97.4%)	606 (96.2%)
전체	359 (100%)	271 (100%)	630 (100%)	전체	359 (100%)	271 (100%)	630 (100%)
$\chi^2 = 0.414$ , 자유도 = 1, $p=0.520$				$\chi^2 = 1.952$ , 자유도 = 1, $p = 0.162$			

반면 댓글에서는 실명제 이전과 이후 비방적 내용이 26.8%(342개)에서 23.4%(307개)로 감소하였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였다(표 6). 또한 실명제 이후 댓글에 욕설이 포함된 경우도 5.1%(65개)에서 2.1%(27개)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표 6>. 즉 실명제로 인한 게시글의 변화는 검증되지 않았으나, 댓글에서는 비방과 욕설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

18) 본 연구에서 비방적 내용의 댓글이 25.3%로 다른 연구에 비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아마도 정치 관련 게시판이라는 특성상 다른 게시판에 비해 이념적 비방이 많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인 듯하고, 특정 단어를 기준으로 코딩하기보다 글을 전체적 맥락에서 파악하여 상대방을 비웃거나 헐뜯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였기 때문인 듯하다.



<표 6> 실명제 이전과 이후 댓글의 비방과 욕설 정도

댓글의 비방 정도			댓글의 욕설 사용 정도				
	실명제 이전	실명제 이후	전체		실명제 이전	실명제 이후	전체
비방적 댓글	342 (26.8%)	307 (23.4%)	649 (25.1%)	욕설이 포함된 댓글	65 (5.1%)	27 (2.1%)	92 (3.6%)
비방이 아닌 댓글	935 (73.2%)	1005 (76.6%)	1940 (74.9%)	욕설이 포함 안 된 댓글	1212 (94.8%)	1285 (97.9%)	2497 (96.4%)
전체	1277 (100%)	1312 (100%)	2589 (100%)	전체	1277 (100%)	1312 (100%)	2589 (100%)
$\chi^2 = 3.941$ , 자유도 = 1, p = 0.047			$\chi^2 = 1.739$ , 자유도 = 1, p = 0.000				

### 3. 글게시자의 글쓰기 특성이 게시글의 비방과 욕설 사용에 미치는 영향

글게시자의 글쓰기 특성이 글의 내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글을 자주 쓰는 이용자일수록 비방글을 올리는 경우가 적었는데, 중계시자가 쓴 글 중 비방적 내용은 7.0%(302개 중 21개)에 불과하였고, 보통게시자의 경우에도 9.5%(253개 중 24개)였으나, 경계시자의 경우 게시글 중 과반수가 넘는 50.7%(75개 중 38개)가 비방적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7>.

<표 7> 글게시자의 글쓰기 특성에 따른 게시글의 비방 및 욕설 사용

	비방 있음	비방 없음	전체	욕설 있음	욕설 없음	전체
중계시자	21 (7.0%)	281 (93.0%)	302 (100%)	3 (1.0%)	299 (99.0%)	302 (100%)
보통게시자	24 (9.5%)	229 (90.5%)	253 (100%)	4 (1.6%)	249 (98.4%)	253 (100%)
경계시자	38 (50.7%)	37 (49.3%)	75 (100%)	17 (22.7%)	58 (77.3%)	75 (100%)
전체	83 (13.2%)	547 (86.8%)	630 (100%)	24 (3.8%)	606 (96.2%)	630 (100%)
$\chi^2=105.389$ , 자유도=2, p=0.000			$\chi^2=82.745$ , 자유도=2, p=0.000			

욕설의 사용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는데, 글을 자주 쓰는 게시자일수록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었다. 중계시자는 1.0%(302개 중 3개)의 게시글에서만 욕설을 사용하였고, 보통게시자는 1.6%(253개 중 4개)의 글에서만 욕설을 사용한 반면, 경계시자는 22.7%(75개 중 17개)의 글에서 욕설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렇게 이용자의 글쓰기 특성이 비방과 욕설의 사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 4. 글게시자의 특성에 따른 실명제 효과의 차이

앞의 분석에서 게시글에서의 비방과 욕설 사용 여부에는 실명제 실시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면, 글게시자의 특성에 따라 실명제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8>과 <표 9>. 즉, 글게시자가 중게시자이든 보통게시자이든 경게시자이든 실명제 이전과 이후에 게시글의 비방과 욕설 정도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표 8> 글게시자의 글쓰기 특성에 따른 게시글 비방에 대한 실명제 효과의 차이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글쓰기 빈도	225.053	2	112.527	25.313	.000
실명제	6.398	1	6.398	1.437	.234
상호작용	7.541	2	3.771	0.848	.432

<표 9> 글게시자의 글쓰기 특성에 따른 게시글 욕설에 대한 실명제 효과의 차이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글쓰기 빈도	2.986	2	1.493	46.646	.000
실명제	.059	1	.059	1.840	.175
상호작용	.002	2	.001	0.034	.966

#### 5. 게시글에서의 비방과 욕설 사용이 댓글의 비방과 욕설 정도에 미치는 영향

게시글의 내용이 댓글의 내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게시글에 비방적 내용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댓글에서도 비방적 내용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표 10>.

<표 10> 게시글의 비방과 댓글의 비방간의 관계

	댓글에 비방 있음	댓글에 비방 없음	전체
원게시글에 비방 있음	119 (30.7%)	268 (69.3%)	387 (100%)
원게시글에 비방 없음	530 (24.1%)	1672 (75.9%)	2202 (100%)
전체	649 (25.1%)	1940 (74.9%)	2589 (100%)

$\chi^2=7.820$ , 자유도=1,  $p=.005$

비방적 게시물에 대한 댓글의 경우 30.7%에서 비방적 내용이 발견되었고, 비방적이지 않은 게시물에 대한 댓글의 경우 24.1%에서 비방적 내용이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댓글 작성자와 원게시자와의 상호작용이 댓글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 욕설의 경우는 원게시글의 욕설 사용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9)</sup>

## 6. 게시물 특성에 따른 댓글에 대한 실명제 효과의 차이

게시물에 비방적 내용이 있었는지 여부는 또한 댓글 비방에 대한 실명제 효과와 상호작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표 11>.<sup>20)</sup> 비방적 내용의 게시물에 대한 댓글에서는 비방 내용이 발견되는 정도가 0.26에서 0.10으로 실명제 이후 크게 줄었다<그림 3>. 그러나 비방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게시물에 대한 비방적 댓글의 정도는 실명제 이전과 이후 별로 차이가 없었다. 즉, 비방적 글에 대해서 실명제 이전에 비방적 댓글로 반응하던 이용자들이 실명제 이후에는 비방적 댓글로 반응하는 정도가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이용자들은 실명제 실시 이후 글의 내용에 대해 스스로 조심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 반면 게시글이 비방적이지 않은 데도 비방적 댓글을 다는 경우는 실명제 이전에도 많지는 않았으나 실명제로 인해 더 줄어들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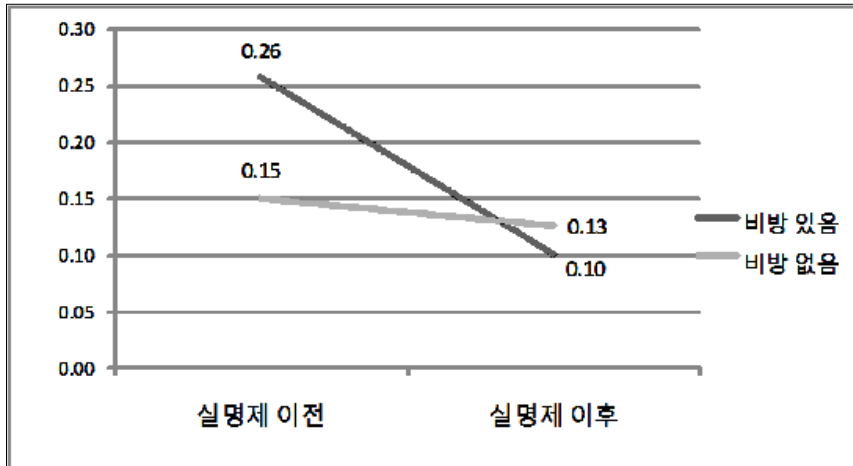
<표 11> 댓글 비방에 대한 게시물 비방 여부와 실명제의 상호작용 효과

	제3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게시글의 비방 여부	1.339	1	1.339	7.161	.007
실명제	3.345	1	3.345	17.893	.000
상호작용	3.155	1	3.155	16.876	.000

19)  $\chi^2=1.611$ , 자유도=1,  $p=.204$

20)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림 3> 게시글의 비방에 따른 댓글 비방에 대한 실명제 효과의 차이



이렇게 댓글의 비방에 대한 실명제의 효과는 원게시글의 비방적 내용에 반응적으로 대응한 이용자들에게만 작용한 반면, 이들에 대한 실명제의 영향력은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욕설의 경우에는 욕설이 포함된 게시글의 숫자도 적을 뿐 아니라 욕설이 포함된 게시글에 대한 댓글에 욕설이 있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게시글에서의 욕설 여부와 실명제, 그리고 그 상호작용이 댓글의 욕설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

## 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실명제 이전과 이후의 글게시 행위와 게시글 및 댓글의 내용을 분석하여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실명제 실시 이후 게시판에서 게시글과 댓글의 숫자가 감소하였고 삭제한 글의 빈도도 늘어났다. 또한 글을 쓰는 아이피의 숫자가 줄어들어 게시판 참여자의 숫자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게시자의 구성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중게시자의 분포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보통게시자가 줄어들고 비상시적 경게시자의 분포가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실명제의 실시는 글게시자들의 글쓰기 행위를 광범위하게 변화시키면서 다소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명제의 실시가 비방과 욕설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실제로 달성한다 하더라도, 이 제도로 인해 이용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절대량이 적어지고 커뮤니케이션에

참가하는 구성원이 달라지며 의사소통의 내용에 변화가 생긴다면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글 내용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실명제 실시 이후 게시글의 비방과 욕설 정도는 줄어들지 않았다. 반면에 댓글에서의 비방과 욕설은 실명제 이후 감소하였다. 실명제의 도입이 인터넷상 비방과 욕설을 없애거나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면 의도한 효과가 달성되고 있음이 부분적으로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의 특성이 게시글과 댓글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드러났다. 글을 자주 쓰는 중게시자나 보통게시자에 비해 글을 상시적으로 올리지 않는 경계시자가 비방글을 올리거나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게시글의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적 조건을 변화시킨 실명제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글게시자의 특성으로 인한 게시글 내용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댓글의 내용에는 실명제를 통한 환경적 요건의 변화가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게시글의 내용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시글에 비방적 내용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댓글에서도 비방적 내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원게시글에 비방적 내용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명제의 효과도 달라졌다. 비방적 게시글에 대한 비방적 댓글은 실명제 실시 후 상당히 줄어든 반면, 비방적이지 않은 게시글에 대한 비방적 댓글은 실명제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즉 비방적 게시글에 대한 반응으로서 비방적 댓글을 달던 사람들이 실명제 실시 이후 글의 내용에 대해 스스로 조심한 것으로서 반응적 비방은 감소하였던 반면, 게시글에 상관없이 비방적 댓글을 올리는 이용자들에게는 실명제의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게시글의 비방에 반응적으로 비방댓글을 올리는 사람들과 게시글 내용에 상관없이 스스로 비방댓글을 올리는 사람 간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글게시와 관련한 제도적 환경과 게시글 및 댓글의 내용 간의 관계에서 이용자 개인의 역할이 함께 작용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여러 가지 제도적, 학문적 함의를 갖는다. 무엇보다도 익명성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을 통제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의사소통 내용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접근 방법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인다는 점과 함께 한편으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그동안 익명성의 의미와 영향에 대한 많은 이론적, 규범적 논의가 있었지만, 본 연구를 비롯한 경험적 연구들은 익명성이 인터넷 이용자의 커뮤니케이션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특정한 차원에서 또는 다른 요인들과 맞물려서 그 의미를 발휘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박인우·김미향, 2000; 이성식, 2005). 즉 인터넷 이용자의 행태와 이들이 게시하는 글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고자 할 경우 제도적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익명 또는 실명 환경의 효과가 특정한 이용자 그룹에 더 집중되어 나타나는 것이라면 더더욱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사회적, 교육적 차원에서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이성식, 2004). 인터넷 공간의 여러 문제들이 기술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보다는 개인의 특성과 사회적 규범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면(Thompson, 1997), 이에 대한 제도적 논의 역시 좀 더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실명제 전후 열흘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사이트의 특정 게시판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의 함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무엇보다도 비방과 욕설의 감소 및 글쓰기 위축 등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타날 지 여부에 대해서 검증할 수 없었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글쓰기 및 글 내용의 변화를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글의 논조나 근거의 제시 여부 등 글 내용의 다른 질적인 차원들에서 차이 또는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못하였다. 다만 실명제 실시 이전과 이후 모두 글을 쓴 사람의 게시글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에 대한 댓글들을 비교한 본 연구의 특성상, 댓글에서 변화가 나타났다면 글게시자들의 글 내용이나 논조의 변화에 따라서 함께 변화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비방과 욕설 사용 여부만이 아니라 글 내용의 다른 차원에 대해서나 글게시자들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명제 및 익명성과 관련된 논의를 비방과 욕설 등 사이버 범죄나 언어폭력의 차원을 넘어서서 계속하는 것은 제도적 유용성을 높일 뿐 아니라 인터넷상 커뮤니케이션의 다차원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강아름 (2008. 1. 6). 인터넷 실명제 이후 악성 댓글 줄었나? “글세”. 『스포츠서울』.
- 곽상아 (2009. 5. 15). 신문의 지상파 소유 반대 88%. 『미디어스』.
- 김경년·김재영 (2005) 『오마이뉴스』 독자의견 분석: “난장으로서의 공론장” 가능성 탐색. 『한국방송학보』, 19(3): 41-35.
- 김기창 (2009). 인터넷 ‘실명제’의 기술적, 사업적, 법적 문제점. 『인권과 정의』, 2009년 7월호, 78-97.
- 김창덕 (2009. 6. 11). <‘인터넷 실명제’ 청소년도 찬성> 반대. 『동아일보』.
- 뉴스와이어 (2007.10.09). 제한적 본인확인제, “과연 악성 댓글 감소됐나?” <http://www.newswire.co.kr/?job=news&no=287451>.

- 명재진 (2003).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실시에 관한 소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CLIS Monthly」, 2003년 5호.
- 민경배 (2000). 「전자민주주의의 현황과 전망」, 사이버문화연구소.
- \_\_\_\_\_ (2005). 「사이버폭력의 원인과 인터넷 실명제의 폐단과 대책」, 토론회-제한적 인터넷 실명제, 사이버폭력 근절의 적절한 처방인가?, 국회의원 진영/ 유승희 주최, 2005.11.1.
- 박인우·김미향 (2000). 동기적 가상토론에서 익명성이 토론 내용의 논증과 부정적 발언에 미치는 영향, 「교육공학연구」, 16(4): 91-106.
- 박정순 (2004). 익명성의 문제와 도덕규점의 구속력. IT의 사회문화적 영향 연구 심포지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세미나 및 공청회, 445-484.
- 방정환 (2008. 10. 8). 네티즌, 인터넷 실명제 빨리 하라. 「매일경제」.
- 성동규·김도희·이윤석·임성원 (2006).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19: 70-129.
- 우지숙 (2005). 정보통제권에서 식별되지 않을 권리로 네트워크 프라이버시의 새로운 개념화를 위한 연구. 「언론과 사회」, 13(4): 110-145.
- 유투브 팀 (2009. 4. 8). 한국 국가 설정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중단합니다. 「유투브코리아 공식 블로그」.
- 이성식 (2004).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이 언어플레이밍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경로 모델의 제시와 검증 「형사정책」, 16(2): 165-185.
- \_\_\_\_\_ (2005).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이 청소년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6(1): 77-107.
- 이성희 (2007. 10. 11). 정통부, 본인확인제로 악플 감소? 천만의 말씀!. 「경향닷컴」.
- 이시원·민병익 (2002). 지방자치단체 온라인 주민참여 실명제 도입의 영향분석. 「한국행정학보」, 36(2): 205-229.
- 이은우 (2003). 「익명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권리,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관련 정책 간담회, 민주당/ 정보통신부 주최, 2003.5.16.
- 이준웅·김은미·문태준 (2005). 속의민주주의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적, 규제적 조건과 인터넷 토론의 양과 질: 제17대 총선관련 인터넷 게시판 토론을 대상으로. 「한국언론학보」, 49권 1호, 29-56.
- 이향우 (2008). 사이버 폭력의 사회적 구성과 인터넷 실명제. 「경제와 사회」, 79: 112-155.
- 차윤경 (2007. 8. 21). 실명확인제 실시 한달째, 아직도 악플 천지..포털이 뛰면 네티즌은 난다. 「쿠키뉴스」.
- 장여경 (2008). 인터넷 실명제와 정보인권, 「인권법평론」. 2호, 317-339,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 정 완 (2005). 사이버폭력의 피해실태와 대응방안. 『피해자학연구』, 13(2): 329-359.
- 최 영·이종민·김병철 (2002). 인터넷 신문의 공론장 역할에 관한 연구: 토론 참여자의 익명성과 토론 매개자의 신분이 토론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언론과 학연구』, 2(2): 115-158.
- 한상희 (2003).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CLIS Monthly』, 2003년 5호.
- \_\_\_\_\_ (2000). 사이버민주주의: 그 의미와 헌법적 전망. 『헌법학연구』, 6( 3): 223- 258.
- 이현창·원순우·김승택·김문수·주영환 (2007). 제한적 본인확인제 효과분석을 위한 조사보고서. 한국인터넷진흥원. 2007. 10.
- 한혜진 (2005).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이슈 및 정책적 접근, 전산원 CIO Report. 2005. 7.1.
- 황성기 (2008).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법학논총』 25(1): 7-37.
- 황용석 (2007).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 『언론과 사회』, 15(2): 97-130.
- Byford, K. S.(1998). Privacy in cyberspace: Constructing a model of privacy for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environment. *Rutgers Computer and Technology Law Journal*, 24, 1-74.
- Cohen, J.(1996). A right to read anonymously: A closer look at 'Copyright Management' in cyberspace. *Connecticut Law Review*, 28, 981-1039.
- Danet, B. (1998). Text as mask: Gender, play and performance on the Internet. Jones, S., *Cybersociety 2.0*, NMC.
- Farmer, J. A. (2003). The specter of crypto-anarchy: Regulating anonymity-protecting peer-to-peer networks, *Fordham Law Review*, 72(3), 725-784.
- Froomkin, M. (1996). Flood control on the information ocean: Living with anonymity, digital cash and distributed databases. *Journal of Law and Commerce*, 15, 395-507.
- \_\_\_\_\_. (1999). Legal issues in anonymity and pseudonymity. *The Information Society*, 15, 113-127.
- Lidsky, L. B., & Cotter, T. F. (2007). Authorship, audiences, and anonymous speech. *Notre Dame Law Review*, 82(4), 1537-1604.
- Long, G. P. (1994). Who are you: Identity and anonymity in cyberspace. *University of Pittsburgh Law Review*, 55, 1177-1213.
- Marsh, T. D. (2007, April). In defense of anonymity of the internet. *Res Gestae*, 24-32.
- McGuire, T. W., Kiesler, S., & Siegle, J. (1987). Group and computer-mediated



- discussion effects in risk decision ma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5), 917-930.
- McIntyre v. Ohio Elections Commission, 514 U.S. 334 (1995).
- Nehf, J. P. (2003). Recognizing the societal value in information privacy. *Washington Law Review*, 78, 1-91.
- OECD (1980).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 Siegle, J., Dubrovsky, V., Kiesler, S., & McGuire, T. W. (1986). Group processes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Organization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37, 157-187.
- Stieglitz, E. J. (2007). Anonymity of the internet: How does it work, who needs it, and what are its policy implications?, *Cardozo Arts and Entertainment Law Journal*, 24, 1395-1424.
- Traynor, M. (2003, July). *Anonymity and the internet*. Patents, copyright, trademarks, and literary property course handbook series, 993-998, Practising Law Institute.
- Thompson, P. (1996). *What's Fueling the flames in cyberspace?: A social influence model*. In L. Strate, R. L. Jacobson & S. B. Gibson (Eds.), *Communication and Cyberspace: Social interaction in an electronic environment* (pp. 293-311). Cresskill, NJ: Hampton Press.
- Tien, L. (1996). Who's afraid of anonymous speech?: McIntyre and the internet., *Oregon Law Review*, 75, 117-189.
- Zarsky, T. Z. (2004). Thinking outside the box: Considering transparency, anonymity, and pseudonymity as overall solutions to the problems of information privacy in the Internet society, *University of Miami Law Review* 58, 991-1044.
- <http://www.dcinside.com/>
- <http://www.rankey.com/>

##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Real-Name System on Internet Bulletin Boards: How the Real-Name System and User Characteristics Influence the Use of Slanderous Comments and Swear Words

Jisuk Woo · Hyunsoo Na · Jeongmin Choi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effects of the Internet Real Name Verification Law, which has been applied to some Internet service provider bulletin boards in Korea since July 2007. The numbers and contents of the writers and their writings and replies to the writings on the bulletin boards of <dcinside.com>, a well-known community portal in Korea, were compared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It was found that the number of writings and replies decreased, the number of deleted writings increased, and the number of IP addresses from which people posted writings on the bulletin boards decreased. The composition of the writers on the bulletin boards also change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there were fewer heavy users who write more than five writings a day and more light users who write less than one writing each day. Slanderous comments and swear words in the writing of the bulletin boards did not decrease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but slanderous comments and swear words in replies decreased. The nature of the users influenced the contents of the writings. Light users tend to use slanderous comments and swear words more often than medium and heavy users. When the writings contain slanderous comments and swear words, the replies made to those writings tend to contain such comments and words as well. In addition, replies with slanderous comments and swear words that responded to such writings decreased after the law, while replies with slanderous comments and swear words made to the writings without such comments and words did not decrease after the law.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role of the individual users, as well as the role of the legal system, should be considered in an effort to influence the users' communication and behavior.

**【Key words: Internet, Anonymity, Real-Name Identification System, Freedom of Speech, Content Analysis】**